

PABA 주심으로 데뷔한 작년 11월에는 WBA(World Boxing Association) 국제심판 자격도 받았다. 올해 3월에는 일본에서 열린 WBA 슈퍼플라이급 세계타이틀전 부심으로 참가하면서 WBA에 데뷔했다.

체중감량 및 재활을 위한 치료법 연구 중

WBA참가한 것만으로도 오래 기억될 경기였지만, 그 때의 가슴 통증을 잊지 못하고 있다. "4세급을 석권한 비내수벨라의 레오 가메즈는 경기를 해보나마나 승자였고, 도전자 일본의 고바야시 세이스도 알고 있었겠지만, 관중석 밑 밑에 그의 아내와 아들이 쳐다보고 있었기에 차마 참패를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고바야시가 이겼습니다. 그 경기는 제가 WBA 심판으로 처음 참가하는 경기이기도 했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도 새삼 느끼게 해주었던 경기였습니다."

PABA는 WBA 산하단체로 42개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는 단체이며 PABA 소속 한국 국제 심판은 4명이 있다. 그 중이 원장은 PABA 주심만 15화를 보았다.

재정을 해서 승자를 가려내야 하기에 힘든 점도 있다. "재정 기준은 누가 권치를 많이 날렸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부까지 거의 막상막하로 가다가 마지막에 좀 더 강한 권치를 많이 날렸다면 그 선수가 이겨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막하의 상황에서 이미 상대 선수

가 한 두 펀치씩 더 날렸다면 그 선수가 이긴 것으로 판정합니다. 그럴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죠."

라운드 별로 재정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 때는 자신을 심판해 줄에 따르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했다. 국제심판은 영어와 12라운드를 펼 수 있는 체력, 공격한 판정을 내리기 위한 손발력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주심은 선수들이 땀사이드로 몰리지 않도록 하여 선수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한편으로 가급적 선수와 삼각형을 유지해야 하면서 키에라 위치까지 파악해야 하므로 상투관단이 가장 중요하다.

국제 심판이기에 더불어 가질 수 있는 혜택은 적어떨이다. 한 번 여행을 갔다오면 모든 증거물을 스캔한다. 찍은 사진은 물론 비행기표며 식당계산서, 그때 그 느낌을 고스란히 남긴 일기까지. 그렇게 꼼꼼히 경력에 높은 스펙북만 해도 5~6권은 된다.

아쉬운 것은 국내 복싱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개도국에서는 대중화되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급화, 이벤트화 되고 있는 것이 복싱입니다. 우리나라는 70~80년대 전성기를 맞은 후, 선수층이 얇아 고급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만한적인 스포츠라 하여 태도하고 있지만

이런 입장에게 복싱은 원초적으로 힘의 우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남성이 넘치는 스포츠이다.

그는 7명의 WBA 의무부과위원 중 유일한 한의사로서 앞으로는 WBA 집행위원회에 진출하여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복싱 선수의 체중감량 및 재활을 위한 치료법을 연구 중이다. ●

글 | 김도현 기자, 사진 | 이주석



심판도 연습을 해야한다.



WBA 의무부과위원을 역임한 김도현(가운데, 하).

이만영 한의장의 '스포츠 한의학'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회장이기도 한 이만영은 복싱 역종권이 WBA 슈퍼플라이급 챔피언으로 오르게 한 일등공신이었다.

백종권이 라이벌급에서 슈퍼플라이급으로 처음 뛰는 상황에서 1.2kg이 초과해 애통을 먹고 있던 차에 이만영의 시술은 결국 그의 승리로 이끌었다. 이만영은 백종권의 지방이 체중의 5.6%인 3.3kg임을 알아냈다. 체지방율을 2.8%까지 떨어지게 하는 침술을 시술하여 체중조절 하는 데 성공했다. 그중 더불어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식이요법을 제공하여 결국 백종권을 챔피언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 스포츠 한의학은 실제 임상에서 단지 운동선수의 상태 제정과 치료에 국한하지 않고,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비만 및 절름 팔의 성인 등의 예방과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